

# '50년 만기' 가계대출에 기름 붓다...21개월 내 최대 증가

### 5대 은행 8월 가계대출 680조8120억...한달새 1조5912억 급증 '50년 만기' 막차 수요 몰리며 대출 잔액 2조 늘어난 2조8867억 연체율은 2년새 두 배로...대출 부실 위험 증가에 한은·당국 고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전체 대출 연체율까지 지난해의 약 두 배에 이르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은의 경우 이자 부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자라도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대출 수요를 줄인다면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왔지만, 긴축 효과는 갈수록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져 난감한 입장이다.

일단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규제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가계대출 가(假)수요가 몰리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1조5912억원 늘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일 뿐 아니라, 8월 증가폭(1조5912억원)은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월에만 2조1122억원(512조8875억원→514조9997억원)이나 뛰었다. 2조원대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은 2022년 12월(2조3782억원)이

래 8개월 만에 처음이다.

8월 가계대출 급증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우선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었다.

또 이례적으로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 25~31일, 단 5영업일 만에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급증했는데, 상당 부분이 50년 만기 상품 대출로 추정된다.

지난달 10일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뒤 은행권은 스스로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같은 달 하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선정 기준 조정에 따른 50년 만기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압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몰렸다.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겠다고 예고한 NH농협에서 지난달 25~31일 주택담보대출이 5082억원이나 폭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까지 계속 나빠지면서,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8%-기업대출 0.34%)로 집계됐다. 한 달 전 6월 말의 0.29%(0.26%-0.31%)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아허여신(NPL)비율도 한 달 사이 평균 0.25%에서 0.29%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각 은행이 건전성 지표 관리 차원에서 6월 말 부

실 채권을 집중적으로 상·매각을 통해 털어내면서 잠시 주춤했던 연체율 등의 오름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은행권 등과 여러 차례 회의 를 거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논의 결과로서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선정 방식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 관련 억제책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8월 가계대출 지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가계대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50년 만기 DSR 선정 기준 변경 외 다른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산업은행 "광주에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 설립"

### 강석훈 회장, 강기정 시장 면담...혁신벤처 발굴·소부장 입주기업 금융지원 등 역할

KDB산업은행이 광주에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지역 혁신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8일 강기정 시장을 면담하고, 산업은행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 설립 계획과 함께 지역 기업 및 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석훈 회장은 면담에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노후 산단 입주기업의 저탄소·스마트화 복합금융 지원 등을 위해 광주시에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서남권지역은 식품·화학·건설 등 기

존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 산업단지 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다이나믹한 혁신기업 발굴과 서남권지역 기업의 저탄소·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 산업은행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이 설립된다면 지역의 벤처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시는 서남권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산업은행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이 설립된다면, '벤처투자'와 '복합금융' 투 트랙 운영 방식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특히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통한 단계별 성장 지원,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 운영 등에 따른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 광주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KDB산업은행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이 설립된다면 수도권 투자편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관(지자체·금융기관·산업계)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은행, 1억3천만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일 최근 본점에서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해 올해까지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 장학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추천 받아 선발된 104명의 장학생에게 총 1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대표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에게는 손편지와 경제 도서를 전달하며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선발된 장학생 모두가 광주은행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독립기념탑 앞에 서있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공식 차량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현대차 제공>

## 현대차 전기차, 아세안 정상회의 달린다

### 아이오닉 346대 공식차량 지원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총 346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주요 10개국이 참여해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전환경 인프라 ▲디지털 전환 ▲장조 경제 및 금융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대차는 행사 기간 의전과 긴급 상황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될 아이오닉5를 272대, 대표단 배우자의 의전 차량으로 활용될 아이오닉6를 74대 지원한다.

이러 현대차는 참가국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긴급 서비스와 방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국 정상 등 대표단 차량 운영을 책임지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경호부대(Paspampres)를 대상으로 차량 기능 및 운전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Labuan Bajo)에서 개최된 제42회 아세안 정상

회의에도 VIP 인사 및 배우자 의전을 위해 117대의 아이오닉 5를 지원했고 2022년 G20 발리 정상회의에도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87대, G80 전동화 모델 통틀베이스 44대, 현대차 아이오닉 5 262대 등 총 393대의 차량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시대를 열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8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14	15	22	3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3,084,525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9,482,102	72
3	5개 숫자일치				1,308,098	3,274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536
5	3개 숫자일치				5,000	2,501,816

## 광주상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개최

### 5일 수출 업무 담당자 대상

광주상공회의소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5일 광주상의 4강의실에서 수출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방법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사후검증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법 외에도 수출입 통관에 대한 기본 지식 등 실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료 시 '인증수출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광주상의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및 FTA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 전화(062-350-5861/5)로 하면 된다.

## 광주경총, 1618회 금요조찬 포럼 개최

### 김경만 국회의원 초청

광주경총(회장 장진석·부회장 최영환)은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1618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김경만 의원은 '을(乙) 지키는 민생경제 함께 살립시다'를 주제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가처분 소득 제고 및 소비촉진,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보장, 중소기업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최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받았다"며 "기존 국토부에서 미래차 국가산단을 지정받아 하드웨어를 강화했다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광주에 큰 기회가 왔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경총의 다음 금요조찬포럼은 오는 9일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고문이 강사로 나서 '고독한 리더, 위대한 생각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베를린 달구다 독일 베를린 '카우프하우스 데스 베스텐스' 백화점에 위치한 삼성전자 프리미엄 체험존에서 방문객이 '스마트싱스'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를린 곳곳에서 스마트싱스 체험존을 운영하며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의 열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제공>